

스모겟돈 스모그로 인한 아마켓돈

1952년 12월 4일 영국 런던. 공장과 주택가에서 뿜어져 나온 석탄 매연이 템즈 강에서 올라오는 안개와 더해져 만들어진 스모그가 단 몇 일만에 1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바로 런던 스모그 대참사(일명 스모겟돈)입니다. 당시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극장 앞 가시거리는 50m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국은 평소 바람이 잘 불지 않아서 발생 7년 후 강풍이 불어오기까지 스모그는 6일 동안이나 런던에 머물러 있었고 이로 인해 1만 2,000여 명이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첫 사흘 동안에만 4,000여 명의 노약자가 숨졌으며, 만성 폐질환에 걸려 사망한 사람이 8,000여 명으로 그야말로 '스모겟돈'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발생하는 스모그로 사망하는 사람이 중국 내에서만 연간 25만 명을 넘고 있어 이를 '아시아판 스모겟돈'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중국발 스모그에는 석탄 매연과 자동차 배기가스 그 외 수은 카드뮴, 비소 등의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섞여있어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스모그 속에 있는 '미세먼지'가 담배연기 이상의 위험물질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5월 16일,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 2016'의 결과에서 최근 한국의 공기 질 수준이 전 세계 180개국 중 173위로 조사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W당 이산화탄소 배출'은 48.47점으로 170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6월 9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OECD는 이 보고서를 통해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한국인의 조기사망률이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 3위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전망치가 사실이라면 2060년 한국에서는 인구 100만명당 1,109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5,000만명 인구기준 55,450명 사망)하게 되는데 이는 2010년 100만명당 359명 수준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현실로 다가올지 모를 '한국판 스모겟돈'. 아름다운 푸른 하늘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자연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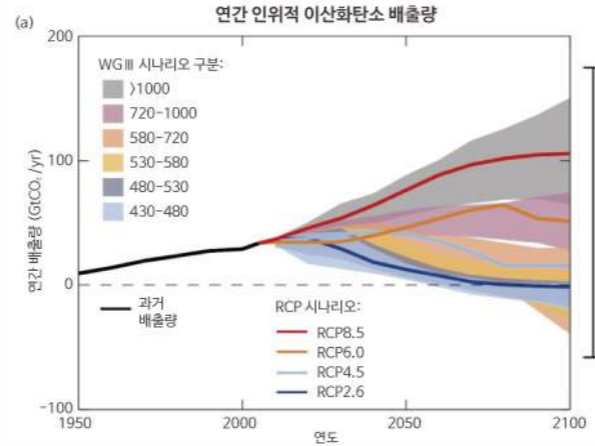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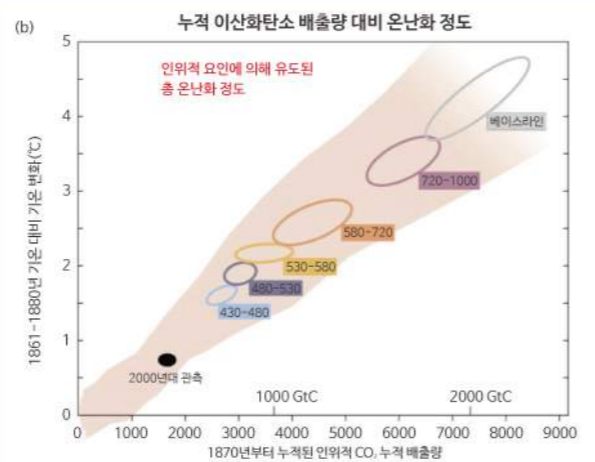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36길 4-11 석정빌딩 4층 / Tel. 02-400-0760 / Fax. 0505-300-0760
이 리플렛은 재생용지와 살기름 잉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대자연이 들려주는 기후변화 이야기 우리가 만든 오늘, 우리가 만드는 내일

인류세_ 인간이 선택한 시대, 인류로 인해 시작된 시대
네덜란드 화학자 파울 크뤼천이 제안한 현재 지질시대를 가리키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인류로 인해 빚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인류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인류세는 인류가 지구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지구 기후와 생태계를 변화시켜 만들어 낸 새로운 지질시대이며 가장 큰 특징은 인류에 의한 자연환경 파괴입니다. 그동안 인류가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한 결과로 지구환경은 이상기온 현상,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받아 그 체계 자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자연 환경 훼손으로 지구가 새로운 지질시대로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메탄과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대기과 지층, 바다와 빙하에 축적시키는 과정 등을 통해 이전 시대와 다른 지질학적 변화를 지구에 가져오고 있으며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를 위협하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지구환경과 맞서며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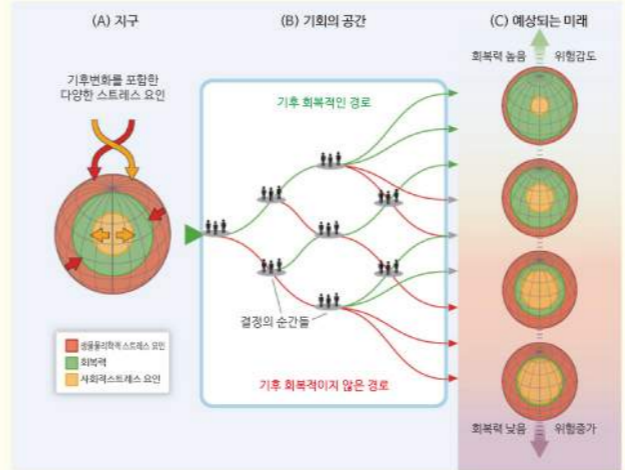
2100년까지의 지구 기온 변화 수준과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 간에는 거의 선형에 가까운 정도로 강력하고 일관적인 상관 관계가 존재합니다. 각 시나리오에 따라 오른쪽 그래프의 타원의 폭으로 표시된 온난화의 정도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날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RCP 2.6 : 0.3°C~1.7°C 상승
엄격한 완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당장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하여 지구 온난화를 제어하는 최선의 시나리오로서 이는 전 지구 온난화 수준이 산업화 시대 이전 기온 대비 2도 상승 이하로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CP 4.5 : 1.1°C~2.6°C 상승
온실가스 저감이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입니다.

RCP 6.0 : 1.4°C~3.1°C 상승
온실가스 저감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 단계입니다.

RCP8.5 : 2.6°C~4.8°C 상승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지구는 기후변화를 포함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그 모든 문제를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들 중의 하나로서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선택과 결정을 하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지구온난화에 대해, 그리고 지구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생활양식과 행동양식, 개인과 집단의 신념과 가치는 기후변화 대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IPCC는 이번 5차 보고서를 통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인해 급변한 기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택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우리의 미래도, 우리가 꿈을 펼치게 될 지구의 미래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 출처: IPCC 제5차 종합 보고서 Figure SPM. 5
IPCC 제5차 보고서 WGII, Figure SPM.9



대자연 소식지

2016년 7월



GREEN CAMPUS

그린 캠퍼스? No! 이젠 그린아트 캠퍼스다!
대학생 환경동아리 회원 110명의 아이디어를
모아 만드는 GREEN ART CAMPUS

그린아트 캠프

일자: 2016. 04. 03 / 장소: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지난 4월 3일, 환경동아리 12개 팀이 함께한 가운데 '그린아트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환경에 아트를 접목한 '그린아트 캠퍼스'를 진행하는 환경동아리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에코디자이너의 전문적인 에코디자인 교육과 체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코디자인의 기초부터 활용사례, 실무교육, 에코백 만들기 체험 등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쉽 없이 진행된 캠프시간에도 매 시간 적극적으로 임했던 열정적인 대학생 환경운동가들! 이들의 행보에 많은 응원바랍니다.



그린아트 아이디어 커뮤니티

일자: 2016. 05. 01 / 장소: 서울에너지드림센터

4월에 개최된 그린아트 캠프에 이어, 푸르른 5월에도 '그린아트 캠퍼스' 만들기는 이어졌습니다. 캠프를 통해 배운 에코디자인을 활용하여 각자의 대학을 그린아트 캠퍼스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한 팀, 한 팀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에코로움팀의 아이디어가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어 에코로움팀 회원들이 우수 아이디어 상을 수여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12개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실물로 제작하여 대학교에 부착하고 '그린아트 캠퍼스'를 알리는 캠페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더푸른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한 뜻을 가지고 모인 이들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자연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그린아트 캠퍼스」 아이디어 소개

이화여자대학교 에코로움 : 포켓몬 프로젝트
자연이 캐릭터를 활용하여 빈 강의실 불끄기, 에어컨 적정온도 지키기, 컴퓨터 모니터, 멀티탭 전원 끄기 참여를 유도합니다.



연세대학교 연그린 : 물 똑똑 캠페인
캠퍼스 내 화장실에 학생들에게 힘이되는 문구와 함께 수경식물을 비치하고, 세면대 내부에 식물사진을 부착하여 손을 씻은 후 손을 털어 손의 물기를 제거할 수 있게 유도하여 핸드타월 사용을 줄입니다.



가톨릭대학교 농락 : 아프리카와 빙하의 눈물을 물로 보지마세요



세면대에 아프리카 아이들의 사진을 부착하고 북극곰 모형을 설치하여 캠퍼스 내 물절약 운동을 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녹색시대봉사단 : 행복하거나 슬픈 북극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 행복하고, 열리면 슬픈' 북극곰 가족의 이미지를 부착하여 엘리베이터 사용을 줄이고 계단 사용을 유도합니다.



우수동아리 소개 신구대학교 환경동아리 Nature+

대자연 KGCAUS 멤버인 신구대학교 환경동아리 Nature+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Nature+는 작년 우수한 활동으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데 이어 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회장상 그리고 신구대학교 총학생회의 상반기 우수동아리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친환경제품과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Green Shop을 운영하여 방글라데시 기후난민을 돕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교내에서 이면지노트 만들기, 대기전력 Zero Campus 캠페인 등의 활발한 활동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대자연, 2016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수상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하는 「2016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에 대자연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녹색기후상은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국가 추진에 공로가 큰 단체를 격려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기후변화 분야 종합 시상입니다. 16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에서 대자연은 기후변화 관련 홍보 및 계몽을 위한 NGO로서 그린스쿨을 통한 환경리더 양성, 그린캠퍼스 활동을 통한 대학생 환경활동가 양성, 그리고 국제 활동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 상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GREEN SCHOOL

리틀대자연 그린스쿨 환경세미나
대학생 환경동아리의 그린캠퍼스 만들기 우수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

일자: 2016.4.8 / 장소: 서울 인창중학교

인창중학교 리틀대자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그린스쿨 환경세미나에서는 대자연 한국그린캠퍼스대학생연합회(KGCAUS)에 가입된 환경동아리 가운데 고려대학교 KUSEP, 서울대학교 AIESEC SNU, 이화여자대학교 AIESEC EHWA, 연세대학교 G.A.Green의 그린캠퍼스 만들기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발표 진행 후 학생들은 '리틀대자연이 꿈꾸는 그린캠퍼스! 내가 대학생 환경활동가가 된다면?'이란 주제로 토의하였습니다. 리틀대자연 학생들은 졸업 후 대자연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진행하여 탄탄한 글로벌 환경 리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NEW 리틀대자연! 일자: 2016.5.11 / 장소: 백송고등학교

대자연은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소재한 백송고등학교에서 환경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자연 리포트를 통해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환경재앙의 심각성을 인식하였으며, 지구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생각해보고 실천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첫 발걸음에 많은 응원바랍니다.



저도 지구를 구하는 환경리더가 될래요!

일자: 2016.7.4 / 장소: 서울 대곡초등학교

지난해에 이어 대자연은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한 대곡초등학교에서 5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지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익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